

■ 한국관광공사 추천 '해를 쫓아가는 여행'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매일같이 뜨고 지는 해에도 남다른 의미가 더해지는 1월, 붉게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를 그리고 희망을 품게 된다. 가족들과 오붓하니 즐길 수 있는 해를 쫓아가는 여행이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월 가볼 만한 곳.



강원도 읍바위 일출



경남 하동포구



경남 백련리 사기마을



파주 헤이리 마을



강원도 송제호 철새철망대



경남 금오산 정상



강원도 왕곡마을

가자, 새희망 담아오자 산·바다·일출 '3色 여행'

◇바위, 파도, 철새의 군무가 어우러진다. 읍바위 일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고성 공현진 포구는 새해를 맞는 겨울 여행의 삼박자를 갖춘 곳이다. 일출, 철새관람, 겨울 풍경 깃든 전통마을 나들이가 가까운 공간에서 이뤄진다. 공현진 포구는 방파제 끝자락 읍바위 너머로 펼쳐지는 일출이 탐스럽다. 읍바위 일출은 추암, 정동진 등 일출명소와 견줘 손색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매력적이다. 한겨울이면 읍바위의 움푹 패인 공간 사이로 절묘하게 해가 솟는다. 이곳 일출이 더욱 운치 있는 것은 철새들의 군무가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철새는 읍바위 인근의 송지호에서 날아온다. 호젓한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송지호에는 큰 고니, 민물 가마우지, 청둥오리 등의 겨울철새가 날아온다. 호수 한 편에는 철새들을 찾아볼 수 있는 철새 관찰타워가 우뚝 솟아 있다. 송지호 산책로 끝에 위치한 왕곡마을 전통 한옥에 머물며 하룻밤을 뜨끈하게 보낼 수도 있다. 이 밖에 설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화진포나, 고즈넉한 건봉사의 경관을 거닐며 한해 소망을 되새겨도 좋다. 고성 팔경 중 1경인 건봉사는 전국 4대 사찰 중 한곳으로 일출의 감동을 안고 눈 덮인 산사를 거닐며 차곡차곡 한 해를 그려볼 수 있다.

파도·철새 어우러진 읍바위 일출 눈부신 남해바다 금오산 정상 폭신한 흙길 가족과 걷는 삼학산

◇하동 금오산 정상에서 다도해의 아침을 열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교면) 섬진강 물길 따라 매화꽃 흐드러진 3월도 아니고 뱃나무 꽃터널 이룬 4월도 아닌 이 황량한 계절에 하동까지 길을 나서야 할 이유는 하나, 금오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지리산 연봉과 기막히게 아름다운 남해바다 조망 때문이다. 다도해 장쾌한 풍경이 일망무제로 펼쳐지는 하동 금오산에서의 해맞이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일출명소로 어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금오산 일출여행의 큰 장점이자 매력은 정상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남해고속도로 진교IC를 나와 금오산 정상까지는 약 11km 거리다. 전 구간 매끈하게 포장

이 잘 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출을 보고 난 후에는 백련리 도요지 사기마을, 하동포구공원, 하동송림, 평사리, 화계장터 순으로 동선을 잡으면 좋다. 19번 국도를 따라가는 이 길은 섬진강 물줄기를 남해 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코스이자 '하동포구 팔십리길'을 따라가는 코스이기도 하다. 금오산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백련리 도요지 사기마을은 우리 전통 찻사발의 본고장으로 현재 하동요의 정용기 선생, 새미골도요의 장금정 선생 등이 도요를 운영하고 있다. 미리 예약하면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다.

◇가벼운 걸음으로 새해의 태양을 맞이하. 파주 심학산(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파동, 동파동, 산남동 심학산 일대) 붉은 아침 태양과 함께 두런두런 걸을 수 있는 여행길이 있다. 파주 심학산은 간편하고 빠른 일출 산행지이다. 해발 194m로, 등반에서 일출 감상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전망도 일품이다. 서울과 고양, 파주, 김포는 물론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풍광까지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마치 산책을 하듯 편안하게 걸어 오를 수 있는 완만한 등산로가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편안하게 일출을 즐길 수 있다. 산의 7부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심학산 둘레길도 걷기 좋다. 총 길이 6.8km로 2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다. 길 폭은 마주 오는 사람과 어깨를 약간 비틀어 지날 정도이다. 높낮이가 심하지 않고, 부드러운 흙길로 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맨발로 걸어도 좋을 듯하다. 일출 산행 후 가까이에서 즐길 거리도 많다. 심학산 허리를 일주하는 둘레길 걷기, 산 아래 자리한 파주출판단지의 현대적인 건축물 감상하기 등등이다. 조금만 이동하면 북한 땅을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통일전망대와 한겨울에도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는 헤이리도 있으니 친구나 연인, 가족끼리 알찬 하루 나들이를 계획해도 좋겠다. 또 심학산은 낙조전망대를 만들어 줬을 정도로 일출만큼이나 일몰이 유명하다. '해감상'을 마지막 코스로 넣고 길을 떠나도 좋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fta.korea.com

친구야! 고운말 쓰자!

'학교폭력'의 시작은 '언어폭력'입니다!
학생 '욕설' 교육동영상 / 교사·학생 언어표준화 자료 내려 받기 : kfta.korea.com

최근 아까운 생명을 자살로 물고 있는 학교폭력의 시작은 '욕설' 등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합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들의 바른 언어 습관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자녀, 학생과 함께 시청, 활용해 주십시오!

'욕설' 교육동영상

- 교육다큐멘터리 동영상(1, 2부 각 60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충북교육청 특별 기획
- '욕' 해도 될까요?**
- [1부] 욕, 뇌를 공격하다!
- [2부] 학생 언어개선 프로젝트
- ▶ kfta.korea.com '교육자료'에서 내려 받기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 '바람직한 학생 언어, 사랑의 교사언어' 자료
- 학교, 가정, 공공장소, 인터넷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중심 바람직한 언어 표준 제시
- 학생언어 : 20장면별 바람직한 언어
- 교사언어 : 20장면별 사랑과 배려의 언어
- ※ 교사·학부모가 한번은 꼭 읽어봐야 할 '사랑과 배려의 언어' 매뉴얼 소책자입니다(PDF 파일)
- ▶ kfta.korea.com '교육자료'에서 내려받기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